

배포일시	2020. 6. 18.(목) 10:00 (총 2매)	보도시점	2020. 6. 18.(목) 14:00
담당부서	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	담당자	과장 김용상 연구사 석미경
		전화번호	02-2181-0861 02-2181-0866

**범부처 기술공유 협업으로
 국가 레이더 기술력을 높이다!**

- 기상청 '2020 범부처 기상레이더 공동 활용 기술 공유' 추진 -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6월 22일(월)부터 6월 24일(수)까지 국방부(공군기상단), 환경부(한강홍수통제소)를 대상으로 2020년 범부처 레이더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기술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기술공유는 기상청에서 개발한 레이더 기술을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유하는 것으로, '국방부·환경부·기상청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협약(MOU) ('18.10)'의 일환으로 추진한다.
- 현재 기상·강우레이더는 △기상청(기상레이더센터) 10대 △국방부(공군기상단) 9대 △환경부(한강홍수통제소) 7대 등 총 26대가 현업 운영 중이다.



| 고산기상레이더 전경 |

- 기상청은 **범부처**(기상청, 국방부, 환경부)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정부업무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레이더 기술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.
 - 공유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(공군기상단), 환경부(한강홍수통제소)를 대상으로 수요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으며,
 - 올해는 레이더 자료 처리 및 레이더 자료 품질관리 기술 등 총 6건의 기술에 대해, 기술교육 및 각 대상기관의 현장 설치를 지원한다.

- 기상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△자료 품질 관리 △강우 추정 △위험기상 분석 △자료 표출·처리 등 총 54건의 레이더 기술을 공유하였다.
 - 공유된 기술은 공군기상단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군작전 기상지원을 위한 레이더 자료품질 향상, 들발홍수 분석을 위한 강우추정 등 각 기관 목적에 맞는 레이더 기술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기상청이 수년간 축적한 레이더 기술을 관계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국내 레이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, 레이더 전문 기술을 선도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” 라고 밝혔다.